Market Analysis Report

2022년 10월 21일
코어닥스 리서치센터

Hot Issue	금융경제 통화의 변곡점에 대한 시사점
가상자산 시장동향	**[비트코인] 2022년 6월 고점에서 강한 지지선 형성하고 있으며,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투자자 중심의 박스권 횡보 중** • 6월 이후 3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11월도 75bp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높아 약세장 지속 가능 • 삼각수렴구간대 안에서 정체 중이며, 매도 압력이 크지 않아 매수세가 나타날 경우 추세선 상향 이탈해 상승 가능성
	[이더리움] 2022년 5월 저항선 250만원 돌파 못하고 하락 반전 후 170~200만원 박스권 횡보 중 • 주식시장 및 글로벌 자본시장이 달러 강세 및 경제지표 악화로 약세장 보이며 가상자산 시장도 약세장 동조화 현상
코어닥스 소식	• **한국경제 TV 코레이팅(Korating)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산업육성' 컨퍼런스 참여**

금융경제 통화의 변곡점에 대한 시사점

권은지 연구원(eunji@coredax.com)

가상자산 시장 성장세와 해외 규제 동향 및 국내 현황

크립토윈터 때마다 존폐위기의 불안을 떠안으며 불황과 호황 곡선을 반복하는 가상자산 시장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14년째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2017년 첫 호황기를 맞이하였고 그 후, 코로나19를 겪으며 2021년 11월 2차 호황기를 맞아 시장은 성장세를 달려왔다.

가상자산 시장 성장세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기본법 제정해야

2021년 12월 말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조 3,829억 달러로 2019년 말 대비 1,086%, 2020년 말 대비 228%이상 급성장하였다.하지만 테라-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2022년 상반기 글로벌 시가총액은 9,000억 달러로, 국내 시가총액은 23조원으로 내려 앉았지만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그 성장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EU 등의 국가들은 가상자산 관련 법률 및 정책 마련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또한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및 증권형 토큰 분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제도권 편입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 가상자산 관련 법안으로 입법된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안을 2020년 9월 24일 발표하였다. 이로써 EU는 전체 27개 회원국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틀을 마련하였으며, 10월 말 유럽의회 통과 시 2024년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미국도 가상자산을 제도권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지난 3월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을 발의하였고, 가상자산을 증권 여부에 따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SEC의 Howey test로 분류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일본 금융청(JSFA)은 자금결제법을 2차례 개정하며 규칙과 제도를 수렴하는 등 주요 국가들은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2021년 3월에 시행된 특금법이 유일하며, 2022년 4분기에 입법 예고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법안(제정안) 8건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 등 총 14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세계 글로벌 금융경제 대체 통화로 가상자산 채택 가능성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로 통화의 변곡점 도래할 수 있어

해외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 관련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며, 국내 가상자산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도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법을 검토하여 제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현재보다 투자자 보호 등에 있어 안정성을 갖추게 될 것이며, ICO, IEO, SCO의 단계적 허용으로 잠재력을 펼치며 상승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은 이제 한때의 버블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금융시장의 역사에는 여러 시사점이 존재한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었고, 이로 인해 탈중앙화를 가치로 내세운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전통금융과 결합하거나 대체하면서 금융시장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존재가치 또한 확장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함께 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과 이를 잡기 위한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긴축경제 실시, 미국의 강 달러 정책으로 인해 금융위기 재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결국 달러 기축통화를 통한 현재의 금융시스템은 외부 충격이라는 요소에 의해 자국 보호무역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개발도상국이나 외환보유고가 취약한 국가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쳐 글로벌 경제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탈중앙화를 바탕으로 한 가상자산이 주목 받고 있으며, 금융 화폐 변곡점의 출발선 상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메타버스, Web 3.0 등 P2P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법정화폐의 역할이 희석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는 NFT를 주축으로 다양한 가상자산들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가치척도의 기준이 되고 있다. 각국 정부가 CBDC 개발에 착수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도 결국 미래 경제패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초석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규제 일변도로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옥죌 것이 아니라 지원 및 육성정책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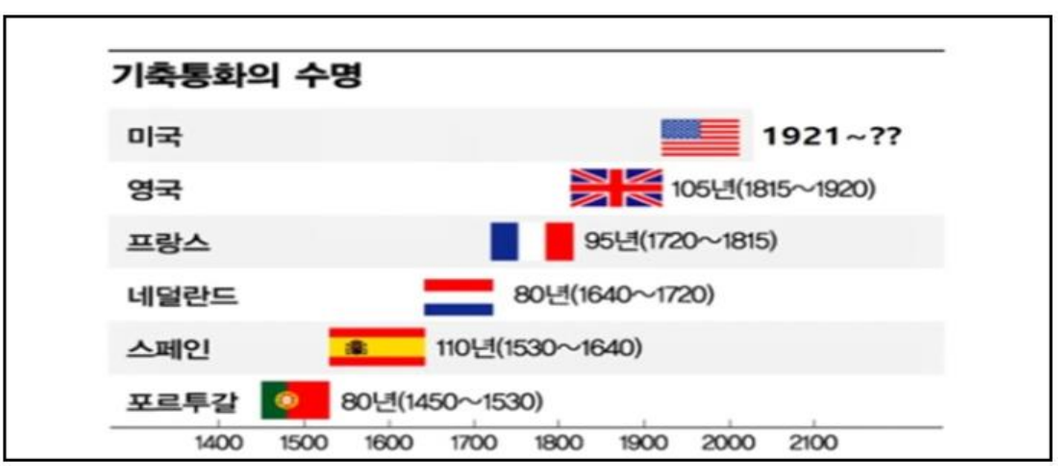
기축통화의 수명으로 예측해보는 탈 중앙화 시대의 미래 통화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금본위제에서 달러 등 기축통화체제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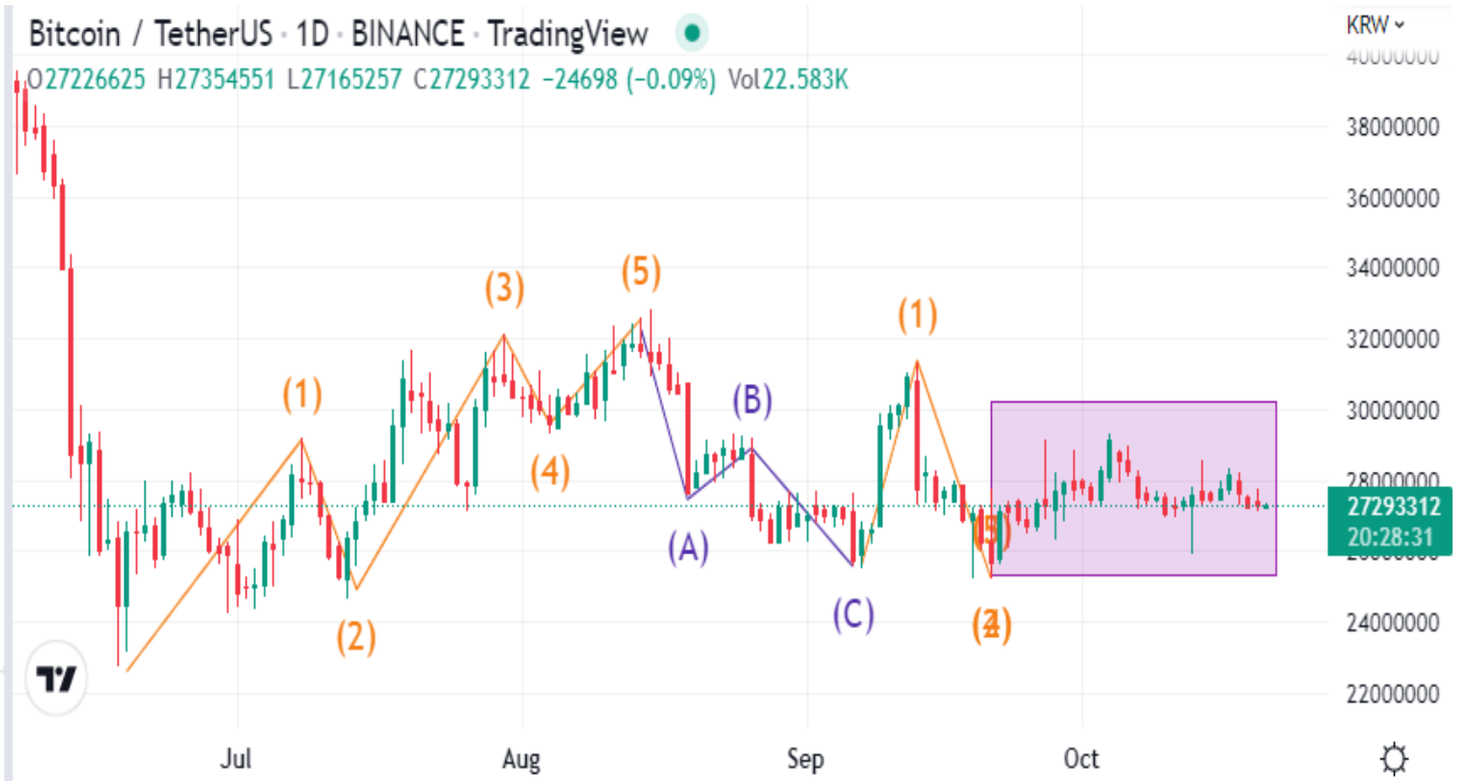
화폐의 역사는 상품의 교환으로부터 시작된다. 서로 원하지 않는 잉여 생산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원하는 상품이 없을 경우 물물 교환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물품화폐, 금속화폐, 주조화폐, 지폐 순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화폐의 탄생으로 세계경제는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되며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통화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금본위제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고, 국가에선 그 기준에 맞춰 자국통화를 발행하는 시스템이었다. 이후 금 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서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는 이른바 닉슨쇼크로 인해 금본위제도는 막을 내렸다. 이후 기축통화가 도입 되었고 기축통화의 수명은 94년의 사이클이 존재한다. 패권국가의 기축통화도 시대마다 변천사가 존재해 왔던 것처럼 경기침체의 위기에 놓여진 현재에 또 한번의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올해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 편입된 지 1세기 하고도 1년이 되었다. 가상자산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기술 발전을 거듭하면서 대중성을 갖추고 우리 눈앞에서 법정화폐를 대체하고 있다. 결국 중앙기관에서 발행·통제하는 집권적 성격을 가진 기축통화의 문제점으로 인해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이 등장하게 되었고, 기존 시스템을 대체함으로써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자유금융 경제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 : BTC



□ 2022년 6월 고점에서 강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으나, 미 연준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고강도 긴축 및 유럽 발 경기 침체 우려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투자자 중심의 박스권 횡보 중

1) 금년 6, 7, 9월 3연속 0.75%p 금리인상 단행 하였던 Fed는 11월 FOMC를 앞두고 4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 단행할 가능성 94.5%

2) 비트코인은 삼각수렴구간대 안에서 정체 중이며, 하락 추세선에 따라 강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지만 매도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며, 매수세가 나타날 경우 추세선을 상향 이탈해 상승할 가능성

〈상승 요인〉

1) 2,500~2,900만원대에서 비교적 탄탄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2023년 ¼분기 금리 인상 마무리 가능성에 따른 반등 기대

2) 채굴난이도 13.55%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소형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보유 비율 전체 공급량의 15.9%로 역대 최고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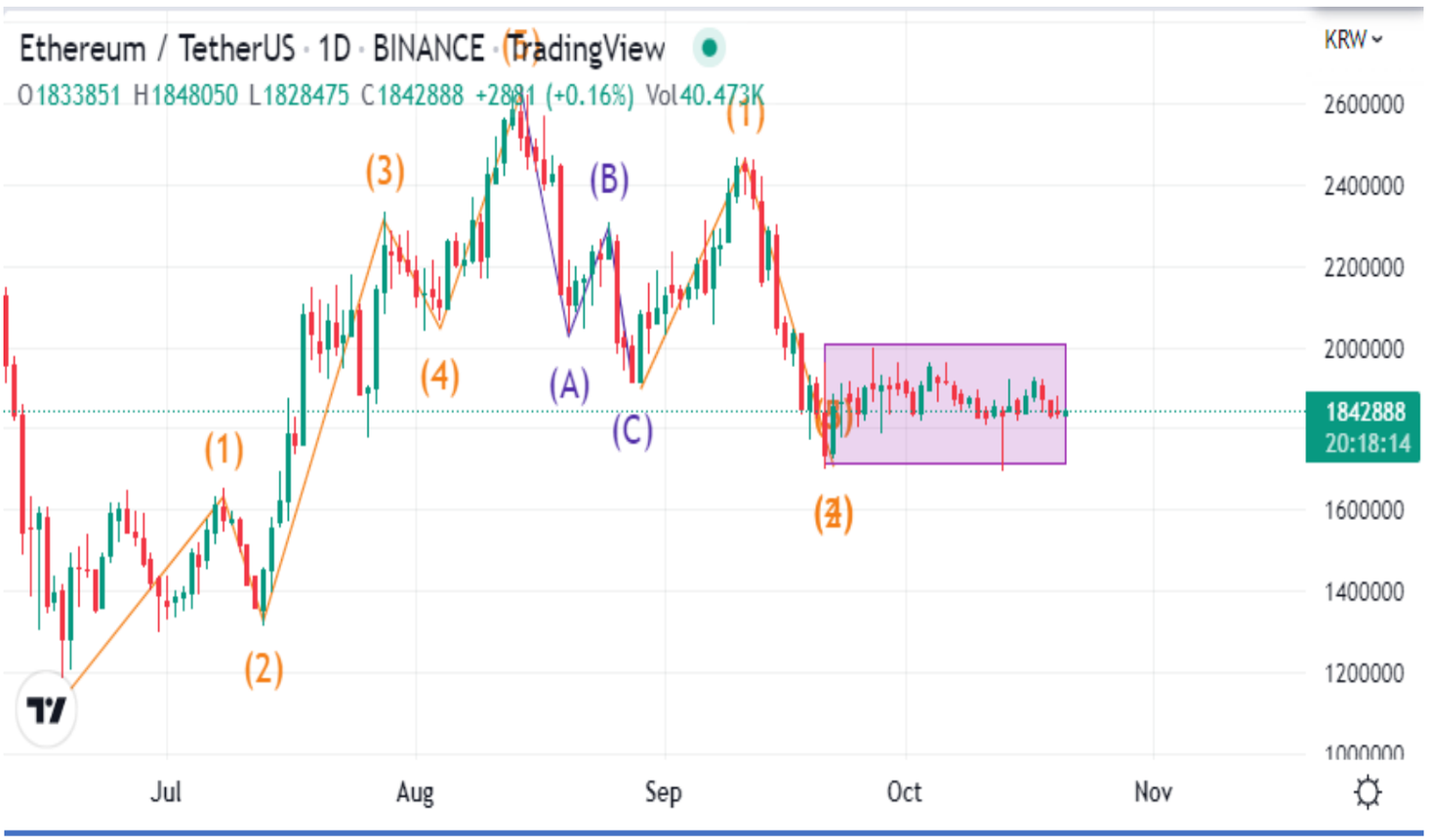
〈하락 요인〉

1) 고래들의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매도 압력으로 인한 반등 실패로 인해 투자자 시장 이탈

2) 9월 CME BTC 선물 '백워데이션'(선물가격<현물가격) 발생하며 약세 신호 평가

3) 엘리어트 파동 분석 시 현재 1파 이후 3파를 형성하지 못하고 실패 후 박스권 횡보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 : ETH



□ 2022년 5월 저항선 250만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 반전 후 170~200만원 박스권에서 횡보 중

1) 주식시장 및 글로벌 자본시장이 달러 강세 및 경제지표 악화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약세장을 보여주고 있음.

2) 이더리움 가격은 미국 주가지수 및 비트코인과의 동조화 현상 심화로 뚜렷한 반전 추세를 보여주지 못하며 당분간 약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상승 요인〉

1) 9월 26일 이더리움 인덱스 펀드 출시로 약 500만 달러 조성 및 10월 28일부터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의 기관 고객 대상 거래 지원으로 이더리움 상승세 가능성

2) EVM(Ethereum Virtual Machine)과 호환성 지닌 XRPL의 사이드 체인 테스트 시작

3) 머지 PoS 전환 후 고래 ETH 보유량 14% 증가 및 신규 발행 98% 이상 감소

〈하락 요인〉

1) 글로벌 경제와의 커플링 현상 심화로 인해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베어마켓 랠리 지속 가능성

2)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엘리어트 파동 현재 1파 이후 3파 형성 실패 후 박스권 횡보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

□ 2022.10.17~10.20 주요 가상자산 지표

가상자산	가격(₩)	7d%	7일 거래량(₩)	도미넌스(%)
Bitcoin (BTC)	27,413,449.99	▲0.31	32,564,287,308,392	39.87
Ethereum (ETH)	1,852,654.94	▲0.80	12,124,665,740,031	17.19
Tether (USDT)	1,432	▼0.32	45,796,568,687,722	7.43
USD Coin (USDC)	1,432	▼0.33	3,817,255,318,940	4.81
BNB (BNB)	389,613.77	▲2.08	749,141,006,218	4.75
XRP (XRP)	658	▲0.36	2,053,079,429,849	2.49
Binance USD (BUSD)	1,434	▼0.30	7,848,488,920,491	2.34
Cardano (ADA)	505	▼3.12	605,331,281,292	1.31
Solana (SOL)	41,866	▼2.01	1,095,199,018,144	1.13
Dogecoin (DOGE)	85.45	▲3.10%	424,217,344,064	0.86

자료 : CoinMarketCap, 10월 20일 17시 기준

코어닥스 소식

1 한국경제 TV 코레이팅(Korating)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산업육성' 컨퍼런스 참여